

| 예 배 | 일 시 | 장 소 |
|----------|--------------|------|
| 주일예배 | 주일 오후 1시 50분 | 예배당 |
| 청년 큐티 나눔 | 금요일 오후 9시 | Zoom |
| 한민 말씀방 | 매일 | 카카오톡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주일 예배 봉사위원

| | 06. 05 | 06. 12 | 06. 19 |
|--------|--------|--------|--------|
| 대 표 기도 | 정용현 집사 | 김효종 집사 | 장래황 성도 |
| 성경 봉독 | 정용현 집사 | 김효종 집사 | 장래황 성도 |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5월 축복인사 - 목표를 정하신 성도님을 격려합니다(성도 간에)
아하자(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자신에게)

1. 나눔의 시간 - 김복자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5월 생일 - 노지민 형제, 정진순 사모, 이세현 형제
3. 한민 말씀방 - 날마다 말씀과 함께 생활하십시오.
4. 마스크 착용 - 예배시간 마스크 착용은 자율 선택입니다(5월부터).
5. 코로나 대응 - Luca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우동정

| 생일 | |
|----|--|
| | |

지난주통계

| | |
|----------|--|
| 주일헌금 | |
| 십 일 조 | |
| 감사헌금 | |
| | |
| | |
| 합계(Euro) | |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만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488장 **다같이**
 기 도 Gebet 강희수 성도
 성경봉독 Predigttext 고전 10 : 23 - 31(신p275) ... 강희수 성도
 (1.Korinther 10:23-31)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타인을 위한 삶, 자유!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기도제목

1. 이타적인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쁨 부어 주소서
3.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 및 지방선거(6월1일) 위해
4. 김선택, 장보경(형가리)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내 바탕은 무엇인가?

얼음으로 탑을 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하나 얼음 덩어리를 쌓아 올려 높은 탑을 쌓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쌓아 올릴 바탕이 차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얼음 탑을 쌓을 곳이 펄펄 끓는 철판 위라면 아무리 열심히 얼음을 쌓아도 절대로 그 탑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는 자기 의가 쌓일 마음이 냉랭하게 굳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펄펄 끓는다면 자기 의가 될 만한 일들을 수없이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 녹아 없어져 기억에서조차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자기 의가 한없이 하찮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제와 헌신을 통해 계속해서 자기 의를 쌓아가고 있다면 그의 선행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올바른 동기에서 출발한 선행은 아무리 쌓여도 스스로에게 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고 헌신했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님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선을 생각하는 것은 마치 거부(巨富)앞에서 얼마 안 되는 1원짜리 동전들을 세는 것보다 더 바보 같은 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조차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목상 사랑 / 김남준 목사
(열린교회 담임)

* 영혼을 일구는 세 가지 덕이 깨어 있는 것과 스스로를 잘 살피는 것과 분별이다. - St. Abba Poemen(5세기 경 수도원 원장) -